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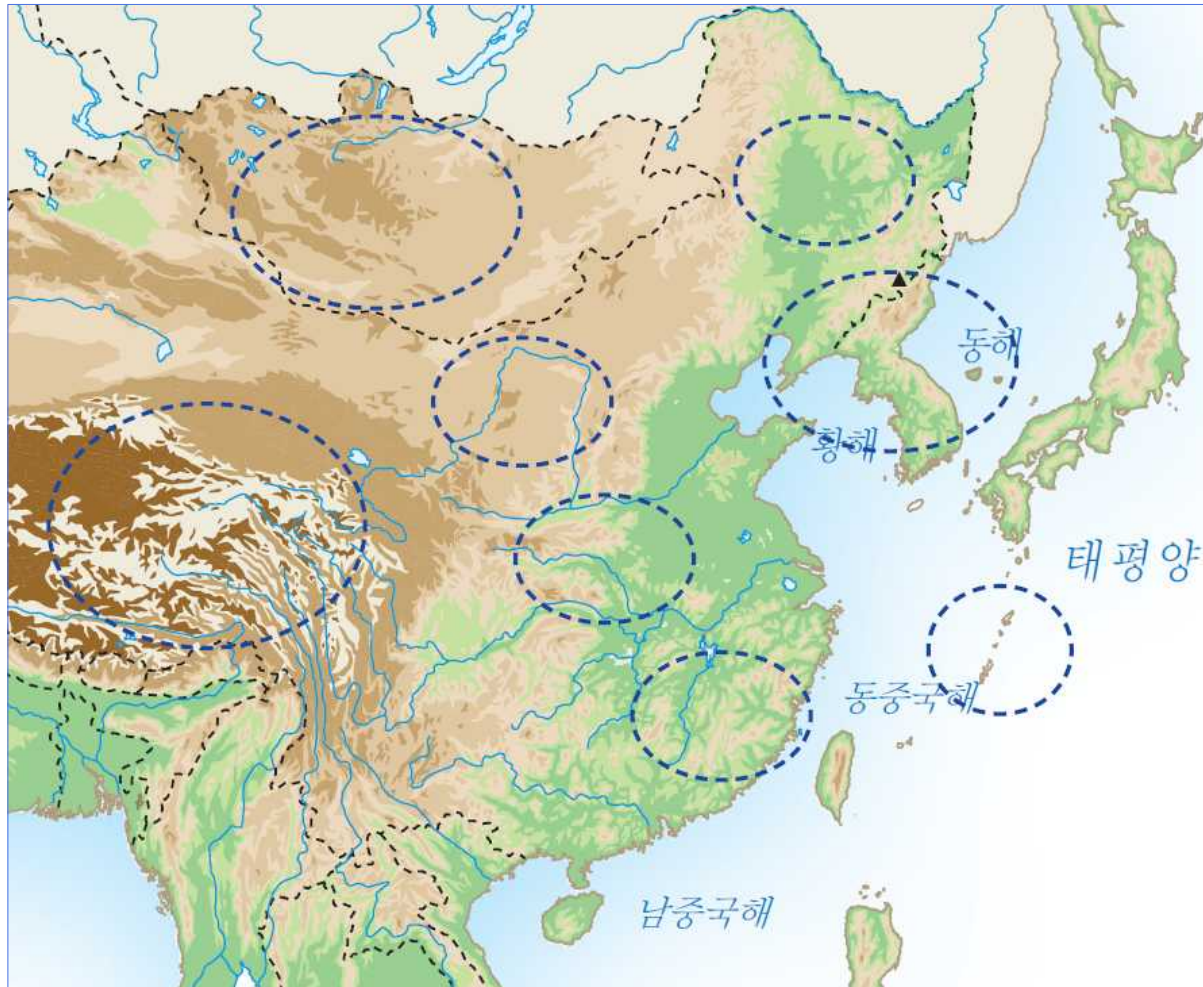
①	• 몽골 고원
②	• 중원
③	• 한반도 북부
④	• 티베트 고원
⑤	• 일본 열도
⑥	• 베트남 북부

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강수량 400mm 미만 • 대싱안링산맥 서쪽의 초원 지대, 티베트, 몽골 등
밭농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강수량 400 ~ 600mm • 화이허 강 이북, 만주 남부, 한반도 북부, 홋카이도 등
벼농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강수량이 600mm 이상 • 중국의 친링 산맥과 화이허 강 이남, 한반도 중·남부, 일본 열도의 혼슈 이남 지역

Check!

동아시아의 지역

- 중국
- 타이완
- 몽골
- 한국
- 일본
- 베트남
- 티베트 고원
- 몽골 고원
- 화북
- 화중
- 화남
- 만주
- 한반도
- 오키나와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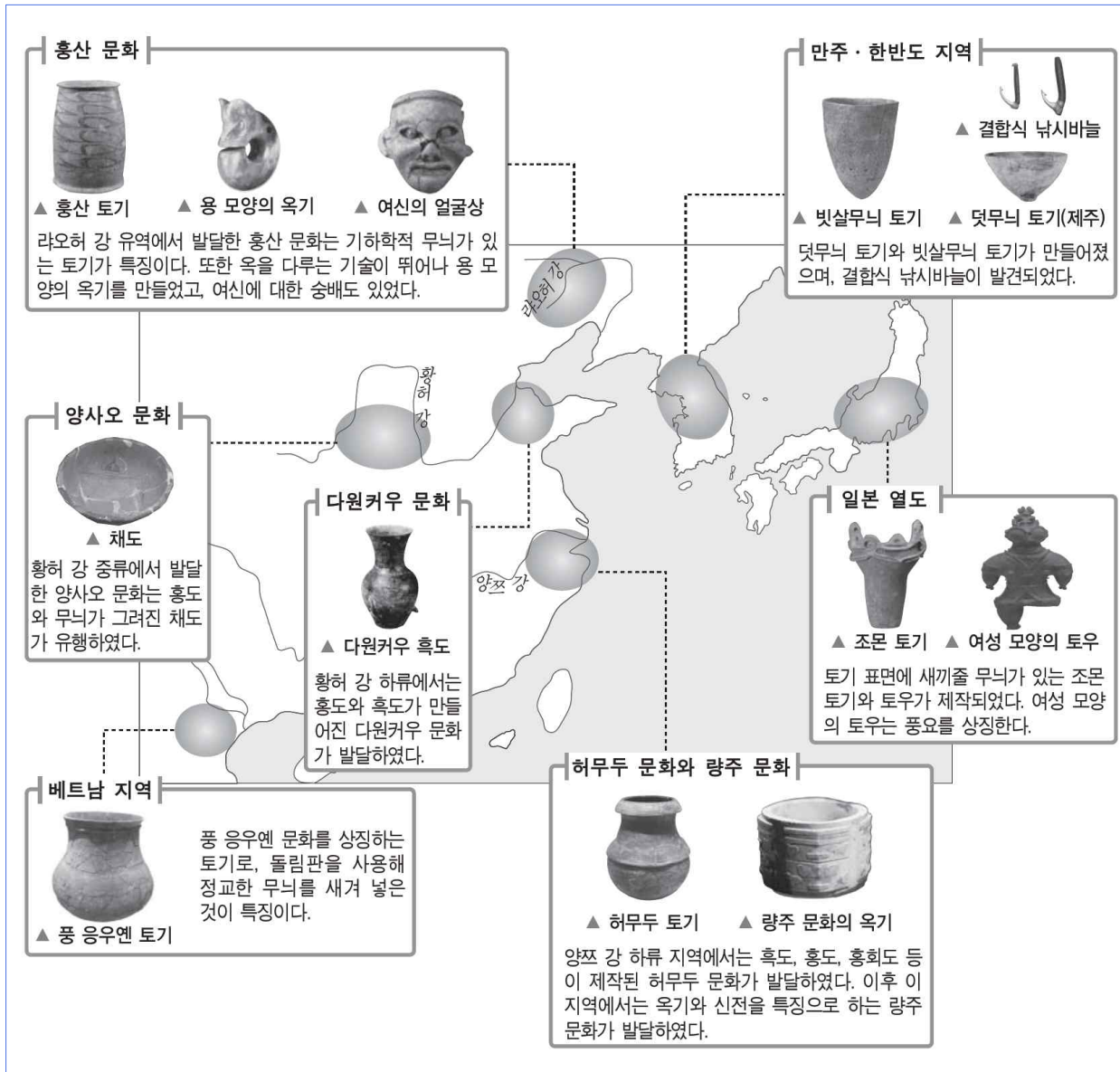
- ① 동아시아 지역은 서쪽으로 () 고원, 동쪽으로 일본 열도에 이르는 지역이다.
- ② 동아시아 세계는 (), 불교, 유교, 율령 등의 공통된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
- ③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상인 중국 남부, 일본 규슈 남부, 베트남 등지에서는 비의 ()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 ④ 동아시아의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 () 유역에서 시작되었다.
- ⑤ () 사회는 농경 사회와 달리 이동식 생활을 하며, 주로 가축을 생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 ⑥ 전근대 동아시아 유목 민족들은 주로 () 단위로 흩어져 생활하였다.
- ⑦ 초원 지대의 유목민은 주로 이동식 가옥인 ()에서 거주하였다.

02

인류의 등장과 구석기 시대의 생활



- 20만 년 이전 인류 출현
: 중국 산시성 시허우두(西侯度)
: 한국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인류 화석
: 중국의 위안머우, 베이징
- 약 4만 년 전 현생 인류 출현
: 중국의 여러 지역
: 한국의 공주 석장리, 청원군 일대
- 일본 열도
: 대륙과 시베리아로부터 구석기 문화 유입
- 구석기 시대의 생활
: 채집·수렵·어로 → 이동 생활
: 쥘석기 사용, 불·언어 사용



문명		특징	
라오허 강 유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산 문화 : 대규모 신전 유적 : 여신상, 용·봉황·멧돼지 등을 형상화한 옥기(제사에 사용) : 원통형 토기 	
황허 강	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오 문화 : 인면어 무늬 채도 	⇒ 룡산 문화 (흑도 등)
	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커우 문화 : 흑도, 백도 주전자 	
양쯔 강 하류 (창장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무두 문화 : 농기구, 볍씨 출토 : 흑도, 홍도, 홍회도 	⇒ 량주 문화 (옥기 등)
만주·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살무늬 토기 • 돌보습, 돌괘이 사용 : 조·피·수수 등 재배 • 돼지, 개 등 가축 사육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몬 문화 : 새끼줄 무늬(조몬) : 여성 모양 토우 : 녹두와 표주박 재배 : 농경보다는 수렵·채집·어로 활동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아빈 문화 : 펜석기, 초보적인 간석기 • 풍 응우옌 문화 : 신석기 후기, 돌림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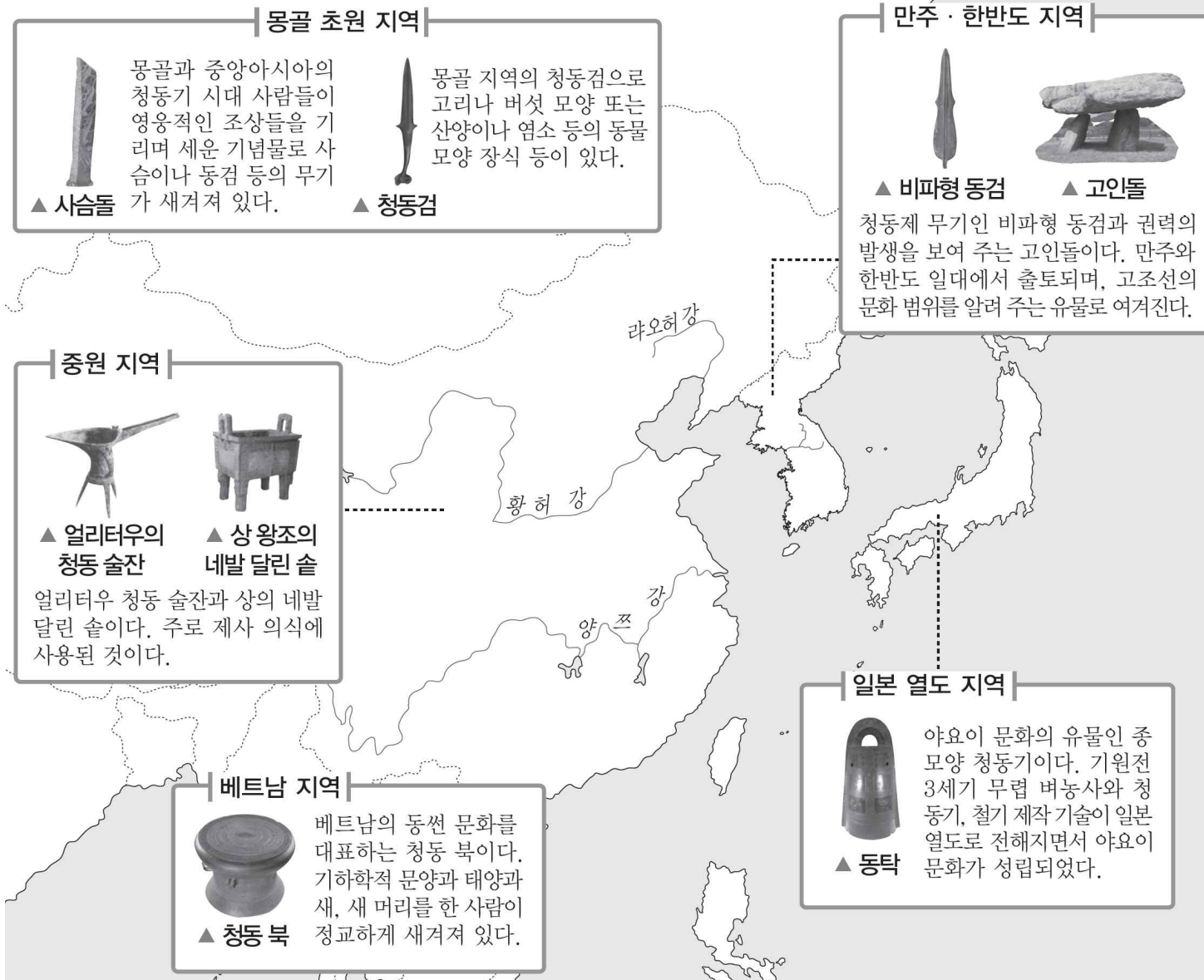
Check!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 문화	[] 문화	[] 문화	[] 문화	[] 문화	[] 농경문화
					

개념 Check

- ① 양사오 문화는 토기 표면에 물감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 넣은 ()를 남겼다.
- ② 여신 얼굴상 등으로 유명한 홍산 문화는 () 강 유역에서 발달하였다.
- ③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 유물은 새끼줄 무늬가 새겨진 () 토기이다.
- ④ 베트남 지역에서는 돌림판을 이용하여 토기를 제작한 () 문화가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이다.



지역	특징
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리터우 문화(릉산 문화권) : 하(夏) 왕조 : 청동 술잔, 녹송석통 황허 문명 : 상(商) 왕조 시기 발전 : 청동제 무기와 도구 제작 : 청동 술(제기, = 후모무정)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구(馬具), 사슴들, 판석묘
만주 ·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동 도구 :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벼농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요이 문화 : B.C. 3 ~ A.D. 3세기 : 간석기와 철기 사용 : 동탁(종 모양 청동기) : 동모(창과 비슷한 무기) 한반도에서 벼농사 전래 : 이타스케 논 유적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썬 문화 : 청동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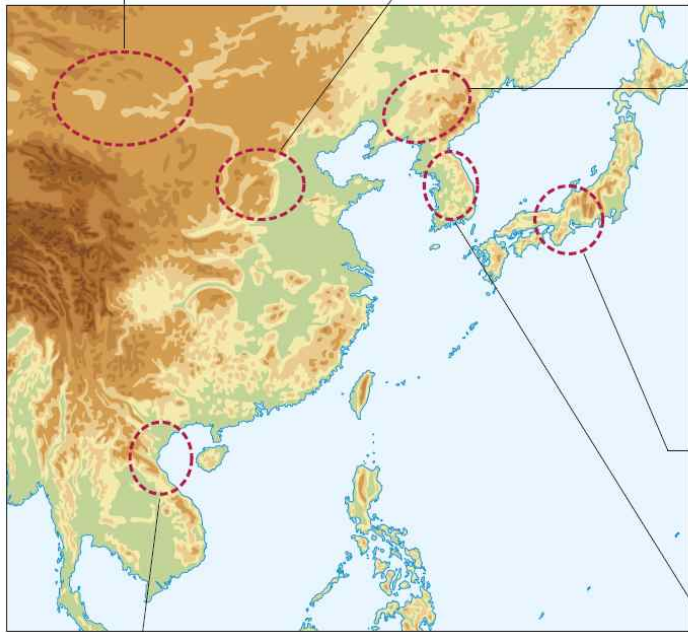
<동모(銅矛)>



◀ **몽골의 판석묘**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도 기원전 2000년대부터 청동기를 사용하였다. 판석묘는 몽골 초원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이다.



◀ **얼리타우의 청동 술잔과 상(은)의 네발 달린 청동 그릇** 황허강 유역의 하-상 같은 국가에서는 주로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대형 청동 그릇을 많이 제작하였다. 은허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은 무게가 875kg 정도 된다. 이런 청동 그릇의 표면에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려는 목적으로 무서운 괴수의 얼굴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기원전 15~10세기경에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주변 지역과 구별되는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었고, 대표적인 유물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이다.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이었고,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무늬 거울 등은 주로 의식용 도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일본의 종 모양 청동기(동탁)**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의 벌농사 및 청동기·철기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어 동검, 동모, 동탁 등이 다수 제작되었다. 동탁은 청동 방울의 일종으로, 주술적 의례를 위한 도구이면서도 지배자의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제작되었다.



◀ **베트남 동 썸 문화의 청동 북** 기원전 7세기경 절정에 달한 동 썸 문화의 대표적 유물은 태양과 새, 그리고 머리가 새 모양인 사람 등이 정교하게 새겨진 청동 제 북이다. 이외에도 각종 청동기가 발견되어 정치 권력의 출현, 국가의 발달을 추측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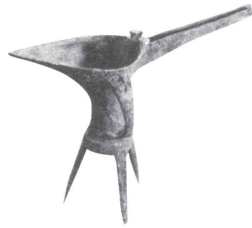


◀ **반달 돌칼** 동아시아의 농경 지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농경 도구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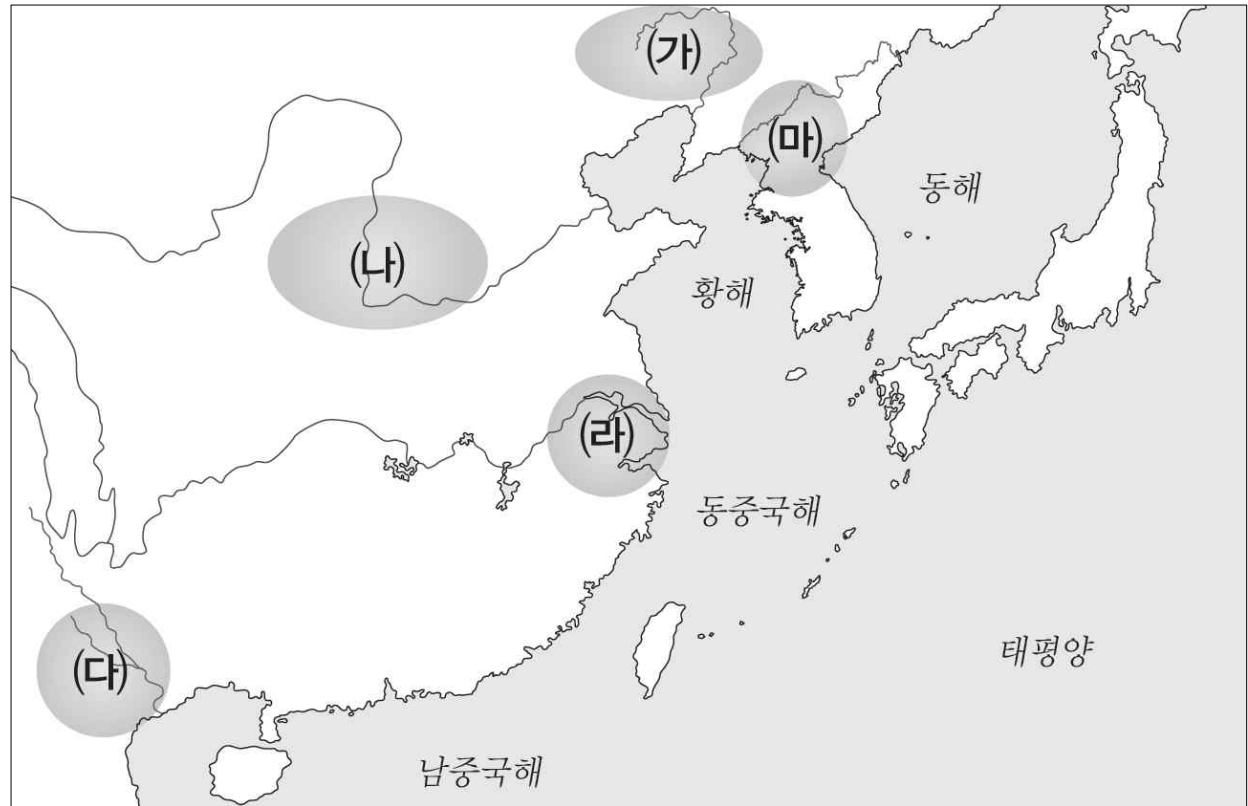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황허 강 유역의 룡산 문화는 청동기 시대의 () 문화로 이어졌다.
- ② 만주와 한반도에는 계급과 권력의 발생을 보여 주는 무덤인 ()이 많이 분포한다.
- ③ 한반도 등지에서 발견되는 석기인 ()은 청동기 시대에 곡식의 이삭을 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④ 종 모양의 청동기인 ()은 야요이 시대에 사용된 제사용 도구이다.

▶ 다음 유물을 남긴 각 문화기 발전하였던 지역은?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동경 73° ~ 145°
계절풍
인구는 주로 3~4구역
몽골
중국(타이완)
한국
일본
베트남(비엣족)

몽골·만주 일부 - 유목
화북·만주·한반도 북부·발농사, 목축
중국 남부·베트남·일본 남부·벼(2회)
한반도 중남부·양쯔강 이남·일본·벼

구석기(뎨석기)

- 100만년 전
 - 중국 시허우두 위안머우 베이징
 - 한국 상원 검은모루 동굴 연천 전곡리 유적
- 4만년 전 : 현생 인류
 - 저우커우덴, 석장리, 청원군
- 빙하기 : 일본 열도까지 대륙
- 뎨석기 : 주먹도끼, 불 스펀베찌르개, 잔석기
- 동굴(그림), 막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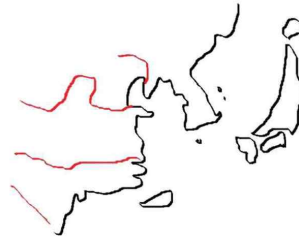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끝 ∴ 기온상승 ↑
현재 지형

신석기(간석기)

- ① 작은 동물(사슴·멧돼지)
- ② 활·화살
- ③ 간석기 - 갈돌과 갈판
- ④ 토기
- ⑤ 농업·목축
- ⑥ 움집·씨족
- ⑦ 직조(옷감)
- ⑧ 애니미즘(정령), 샤머니즘(무속)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토기 중심)



- 라오허강 : 홍산-기하학무늬 토기, 용 모양 옥기, 여신상
- 황허강 중류 : 양사오-홍도, 채도(채색 무늬)
- 황허강 하류 : 다원커우-홍도→흑도
 - 룡산 문화(신석기 후기)
- 양쯔강 하류 : 허무두 문화 - 법씨(최초 벼농사)
 - ↓ - 돼지 그림 토기
 - 량주 문화 - 옥기 + 신전
- 베트남 : 호아빈 - 뎨석기(주), 초보 수준 간석기
 - 풍응우옌 - 돌림판 사용, 정교한 무늬 토기
- 한반도 : 이른민무늬토기·덧무늬토기, 결합식 낚시바늘
빗살무늬토기
- 일본 : 조몬(새끼줄무늬) 토기, 여성 모양 토우

청동기(무기, 제사용)

- *BC. 2000년 경(일본만 BC. 3세기경)
- 몽골 - 돌무지 제사 유적(히르기수르)
 - 판석묘, 사슴돌, 고리 달린 단검
- 중원 - 얼리터우(궁전) : 하왕조, 청동술잔
 - 상(왕조) : 청동기 문화 (청동술) 도씨검(칼 몸+손잡이 일체)
- 만주·한반도
 - 비파형 동검
 - 청동 거울, 방울, 팔찌 등
 - 고인돌, 민무늬 토기
 - 석기-반달돌칼(벼), 흙자귀(농기구 등)
- 일본 열도(야요이 시대 BC 3 ~ AD 3)
 - 한반도 전래
 - ① 동탁(의기용 : 종 모양)
 - ② 철기
 - ③ 벼농사 기술
- 베트남
 - 동썬 문화(BC. 7세기)
 - : 청동 북(태양, 새, 기하학적 문양)

중원 지역

하	최초의 국가(문헌상) 왕이 제사장을 겸함
상(은)	 ▲ 갑골문 ▲ 청동 제기
주	봉건제 실시, 천명사상, 정전제
춘추·전국 시대	• 우경과 철제 농기구 보급 • 군현제와 관료제 출현
진	• 법가 사상 채택 • 진시황 : 도량형, 문자, 화폐 통일 • 군현제 실시, 분서갱유 • 만리장성 축조
한	• 한 고조 : 군국제 실시 • 한 무제 : 군현제 실시, 비단길 개척, 고조선·남비엣 멸망시킴

홍노

- 기원전 3세기경 목탁선우가 초원 지대 통합
- 선우 아래 좌·우현왕이 영토를 3등분하여 통치
- 한 고조의 군대에 승리하여 공납을 받기도 함



한반도 북부

- 단군 신화
- 라오닝 지방에서 국가 형성 → 한반도로 세력 확대
- 전국 시대 연과 대립, 상·대부·장군 등 관직, 8조의 법
- 위만 정권 수립(중개 무역으로 한과 대립)
-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 → 한 군현 설치

고조선

북부 베트남 - 남비엣 (南越)

- 진(秦)의 장수 출신인 짜이우 다가 건국(기원전 203)
- 농경과 해상 무역을 통해 성장하며 한과 대결
-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 → 9군 설치 → 쯩 짜과 쯩 니 자매의 반란

일본 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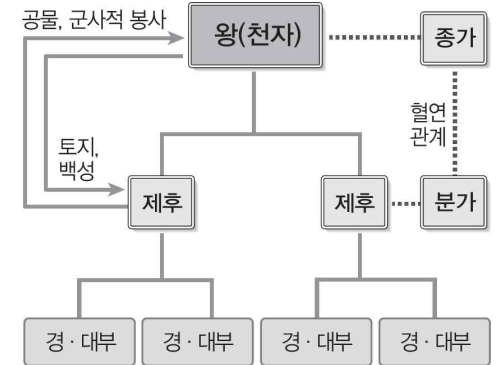
◀ 야마토 시대의 거대한 무덤(전방후원분) 히미코 여왕을 중심으로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소국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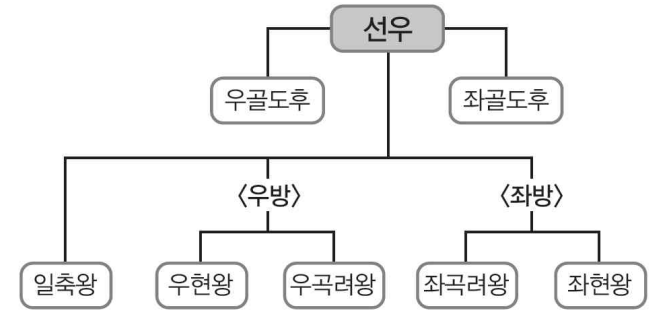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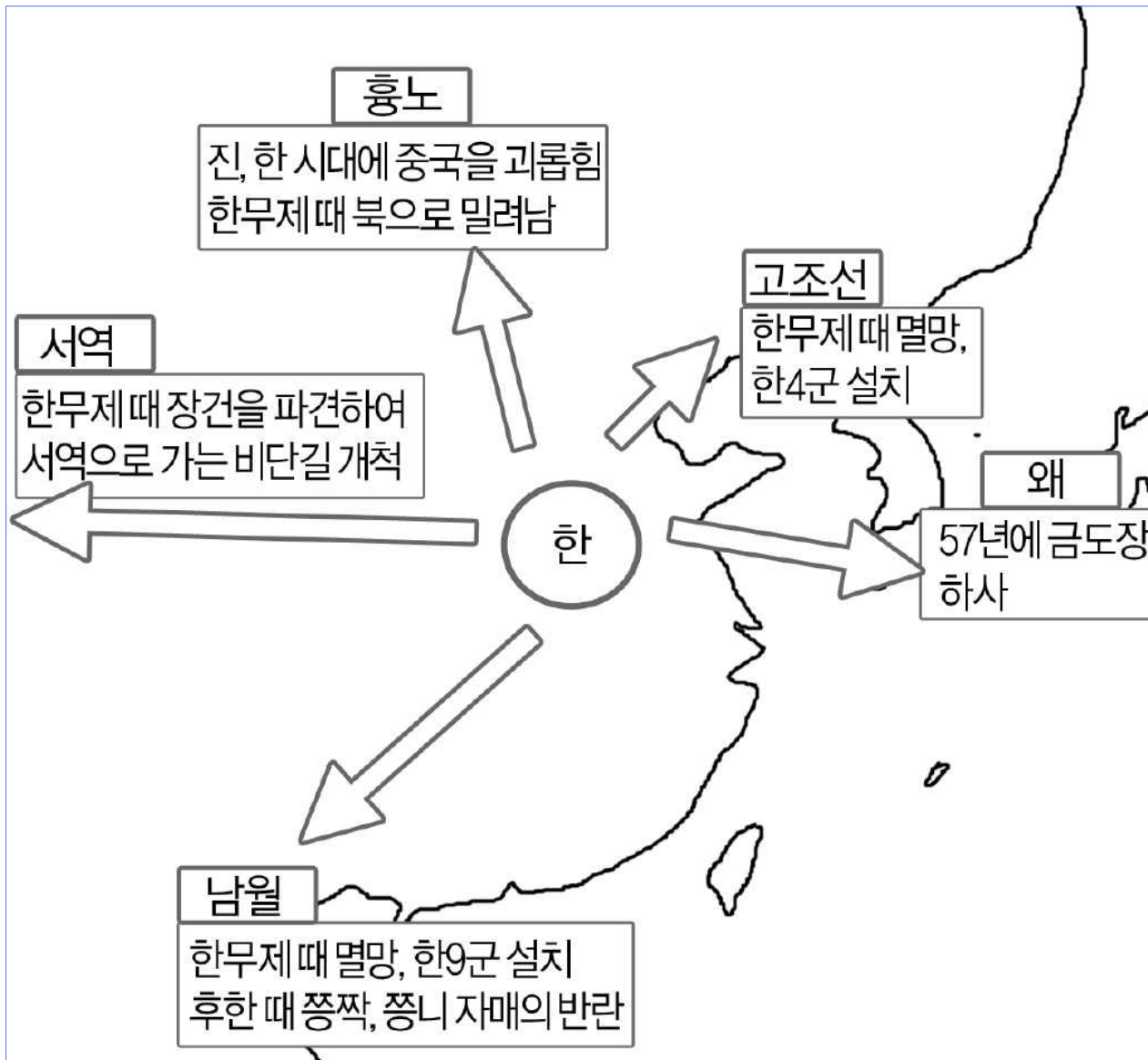
▶기원전

- 2,500년 하(夏) 왕조
- 1,600년 상(商) 왕조
- 1,046년 서주(西周) → 상, 멸망
- 770년 서주의 동천 → 춘추(春秋) 시대
- 403년 전국(戰國) 시대(하극상·약육강식)
- 221년 진(秦), 전국 시대 통일
- 207년 남비엣 건국
- 202년 한(漢), 중원 재통일(漢并天下)
- 200년 백등산(평성) 전투[평성의 치욕]
- ↳, 홍노와 화친(198년)
- 139년 장건, 비단길 개척
- 111년 남비엣 멸망 → 9군 설치
- 108년 위만 조선 멸망 → 4군 설치

▶기원후

- 25년 후한(後漢) 건국
- 40년 쯩 자매의 반란(~ 43년)
- 57년 한위노국왕인
- 184년 황건적의 난
- 220년 후한(後漢) 멸망
- 239년 친위왜왕(親魏倭王)
- 250년 전방후원분 출현





<흉노의 통치>



<흉노의 금린>

① 주의 봉건제(『수능 특강』, p.25)

주(周)의 왕께서는 무왕, 성왕이 정벌하신 상(商)의 판도를 시찰하시고 …… “측아, 의(宜)의 제후가 되어라. …… 토지를 주겠다. 그 토지의 하천은 300여 갈래, 그 읍(邑)은 35개가 있다. 또한 의에 있는 왕인(王人) 17성(姓)을 주겠다. …… 의의 서인(庶人) 6□6명을 주겠다.” 측은 왕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버지 정(丁)의 제기를 만들었다.
- 의후측궤(宜侯矢簋)

② 상양(상 ~ 기원전 338년)의 개혁(『천재 · 금성 · 미래엔 교과서』, p.33 · 37 · 27)

- 법령에 따르면 백성을 열 집 또는 다섯 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고, (한 집이) 죄를 지으면 (그 조가) 똑같이 벌을 받는다. 죄지은 것을 알리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다스리고,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벼슬을 올려 주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는 자는 각각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받는다.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역과 부세를 면제한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체포하여 관청의 노비로 삼는다. …… (이와 같은)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널리 알리기 전이라 백성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세 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자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십 금(金)을 주겠다.” 그러나 백성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지 않았다.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을 옮기는 자에게는 오십 금(金)을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겨 놓자, 즉시 그에게 오십 금을 주어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마침내 새 법령을 공포하였다.
- 한 집안에 성인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면서 분가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그 수에 따라 추가하여 분배한다. 군공을 세운 자는 그 공의 대소에 따라 작위를 받으며 …… 왕의 친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귀족의 신분을 누릴 수 없다.
- 태자가 법을 범했다. 상양은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자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하고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다음 임금에 될 사람이므로 형벌에 처하기는 난처한 일이라고 하여, 그 대신 태자의 스승을 처벌하였다. 다음 날부터 백성은 모두 법을 지켰다.

③ 진의 군현제(『비상 교과서』, p.33)

승상 왕관 등이 건의하였다. “제후들이 모두 격파되었지만, 연·제·초는 거리가 멀어 그 지역에 제후왕을 세우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황자(皇子)들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위 이사는 반대하며 말하였다. “주의 문왕과 무왕은 일족의 자제들에게 분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부터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으며, 제후들이 서로 토벌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주의 천자는 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 다시 제후들을 세우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 진시황이 말하였다. “정위의 의견이 옳다.” 그러고는 천하를 36군으로 나누고, 군마다 수(守), 위(尉), 감(監)을 두었다.
- 사마천, 『사기』 진시황 본기

4 시황제의 분서갱유(『천재·금성·미래엔·비상 교과서』, p.35·37·27·35)

관이 가진 문서 중 진(秦)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도록 하시고, 박사관이 아니면서 감히 시, 서 및 제자백가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지방관에게 보내 불태우게 하십시오. 감히 짝을 지어 시와 서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저잣거리에서 처형하십시오. 옛것으로 지금 것을 비난하는 자는 일가족을 몰살하십시오. 관리로서 이를 알고도 잡아내지 않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리웁소서.

- 사마천, 『사기』 진시황 본기

5 시황제의 영토 확장(『비상 교과서』·『수능 특강』, p.35·26)

시황제는 몽염(? ~ 기원전 209)에게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흉노를 치게 하여 하남 땅을 모두 손에 넣었다. …… 험준한 산을 국경으로 삼고 골짜기를 이용하여 참호로 삼았으며,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하여 임조에서 요동까지 만여 리에 달하는 대장성(大長成)을 쌓았다. 또 황하를 건너 양산과 북가까지 차지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6 평성 백등산의 수치(『금성 교과서』, p.40)

고제(한 고조)가 몸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흉노를 공격하였으나 …… 묵특(흉노의 선우)이 40만 기병을 이끌고 고제를 백등산에 몰아넣고 포위하였다. …… 고제가 사자를 보내 흉노의 연지(선우의 비)에게 많은 선물을 주자 …… 그들의 포위망 한 곳을 풀어 주었다. …… 한 역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후에 유경을 사자로 보내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7 한 무제의 대외 원정(『금성 교과서』,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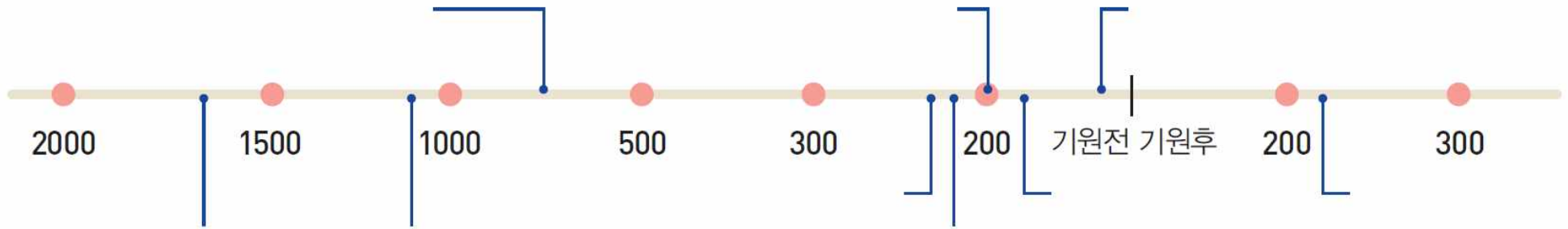
(무제께서) 남쪽으로 백월(남비엣)을 멸망시켜 일곱 군을 세우시고 …… 북쪽으로 흉노를 물리쳐 …… 풍요로운 땅을 빼앗으셨습니다. 동쪽으로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시어 흉노의 왼팔을 자르셨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 오손과 손을 잡아 둔황·주취안·장예 세 군을 설치하시고 강족을 떼어 놓으시어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 버리셨습니다.

- 반고, 『한서』 위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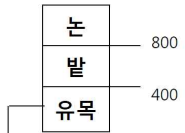
Check!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국가 성립

- 상 성립
- 주, 상을 멸망시킴.
- 고조선 성립
- 진의 통일
- 흉노, 한 고조에 승리
- 히미코, 위에 조공
- 한의 통일
- 위만 조선 성립
- 한 무제, 장건을 서역에 파견



주(周)의 []	진(秦)의 []	한(漢)의 []



- 유목 : 몽골, 만주 이동 생활(게르)
 - 가죽·모피·유제품
 - 낙타·소·말(안장, 등자 발명)
 - 부족 단위, 부족장 권한 대
 - 홍노·선비·튀르크
 - 위구르·거란·몽골
- 홍노**
 - ① 동아시아 최초 유목 국가
 - ② 진·한 대(BC 3C 후반) 성장
 - ③ 목축 선우 : 한 고조 굴복 (평성지치, BC. 200)
- *탱리고조선우 : 최고 통치자
 - ↳ 좌현왕 + 우현왕

- 밭 농사
 - 황허강(BC. 8000년 경)
 - 화북·만주·한반도 북부
 - 조·수수·기장·콩 등 잡곡
- 논 농사
 - 양쯔강 하류(BC 6000년 경)
 - 이기작 : 중국 남부
 - 일본 규슈 남부
 - 베트남
 - 반달돌칼 : 벼 수확
 - 한반도·일본·타이완

- * 농경 사회
 - 부여 : 송화강, 밭농사·목축
 - 고구려 : 농경지 부족 → 밭농사 목축, 수렵
 - 옥저 해조·어류 바침
 - 삼한 : 벼농사·저수지
 - 5·10월 제사
 - 일본 : 규슈·혼슈 벼농사, 어로 (후릿 그물)

중원 국가

- 하 : 문헌상 중국 최초, BC. 2500년경
- 상 : BC. 1600년 경, 신정정치(청동술, 갑골문)
- 주 : BC. 1110년 경, 수도 호경
 - 종법적 봉건제(왕, 제후, 경·대부·사)
 - 천명사상, 덕치주의
- 춘추 : BC. 770년 경, 견융족의 침입, 동주 시대
- 전국 : BC. 403, 진(晉) → 조·위·한 → 전국 7웅
- 진(秦)
 - BC. 221, 통일
 - 시황제(BC. 259 ~ BC. 210)
 - 군현제 36군(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
 - 도량형, 화폐(반량전), 소전체, 도로망 통일
 - 분서갱유, 법가, 이사, 아방궁, 진시황릉
 - 만리장성(홍노 견제)

- 한(漢, BC. 220 ~)
 - 고조 유방
 - 군국제 실시, 홍노와 화친(BC. 198)
 - 무제(효무제) 유철(7대)
 - ① 군현제 실시
 - ② 홍노 정벌(+장건, 대월지 파견)
 - ③ 남비엣 정복(BC. 111) - 한9군 설치
 - ④ 고조선 정복(BC. 108) - 한4군 설치
 - ⑤ 상공업 통제, 소금·철의 국가 독점 판매

- 신(AD. 8, 외척 왕망)

- 후한 : AD. 25, 광무제(유수)

만주와 한반도

- 고조선
 - 라오닝 지방 청동기 문화
 - 세력 범위(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등)
 - BC. 3C. 라오허강 경계 연(전국 7웅)과 대립
 - 상·경·대부·장군 등 관직 설치, 8조법
 - BC. 2C, 위만 망명과 집권(준왕 축출, 194)
 - 철기 문화 본격 수용
 - 중계 무역(↔ 한과 대립)
 - BC. 108,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
- 부여 : 송화강, 예맥족
- 고구려 : 부여족 일파, 압록강 유역, BC. 37
- 백제 : 고구려 일부 세력 한강 남하, BC. 18
- 신라 : 한반도 동남부 사로국 중심, BC. 57
- 가야 : 한반도 남부

북부 베트남

- 반랑국
 - BC. 2879, 최초 국가
- 어우락왕국
 - BC. 3C
 - 중국의 위협
 - 안즈엉브엉, 반랑국 멸망
- 남비엣(남월)
 - BC. 207 ~ BC. 111
 - 짜에우다 건국
 -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
- 쯩짜, 쯩니 자매 독립 운동(40~43)
 - 후한 광무제의 진압 → 실패
 - 중국의 직접 지배

일본 열도

- 기원 전후 정치체 등장
 - 3C경, 30여개 소국으로 통합
- 239년
(히미코 여왕, 야마타이국 맹주, 위 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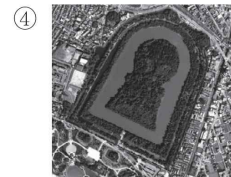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 왕조는 신의 뜻을 묻기 위해(신정 정치) 점을 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갑골에 문자로 새겼다.
- ② 주(周) 왕조는 지방에 제후를 책봉하여 통치하는 ()를 실시하였다.
- ③ 춘추 시대에 이어 전개된 ()는 하극상과 약육강식의 시대로 7웅이 대두하였다.
- ④ ()는 이사(? ~ 기원전 208) 등을 등용하고 강력한 법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을 통일하였다.
- ⑤ 한 무제(⑦, 재위 기원전 141 ~ 기원전 87년)는 흉노를 견제할 목적으로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을 파견하였다.
- ⑥ 한 무제는 팽창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소모를 보완하기 위해 소금과 철 등에 대한 ()를 실시하고 상공업을 통제하였다.
- ⑦ 흉노의 지배자였던 ()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를 굴복시키고 화친을 맺었다.
- ⑧ 고조선에 망명한 ()은 준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
- ⑨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과 탁자식 고인들의 분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⑩ ()의 24명의 장(將)들은 각각 스스로 천장(千長), 백장(百長), 십장(十長), 비소왕, 상봉, 도위, 당호, 저거 등의 속관을 두었다.
- ⑪ 3세기경 일본 열도의 30여 개 소국 중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이 가장 강성하였다.
- ⑫ 한(漢)은 건국 직후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를 실시하였다.

▶ 밑줄 친 '이 왕조' 가 남긴 문화유신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기원전 1300년경 반경이 수도를 옮기면서 건설한 도시가 있던 지역이다. 이후 이곳은 250여 년 동안 청동기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이 왕조의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이곳은 폐허가 되었고, 역사서에 은혜(은의 폐허)라고 기록되었다.



▶(기)에 들어갈 시료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수능특강』, p.27)

대월지로 가는 길은 반드시 흥노 땅을 지나야만 하므로 사신으로 갈 만한 사람을 모집하였다. 장건이 모집에 지원하여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기)



왜의 노국이 공물을 바치고 조공하였는데, 사신은 대부분을 자칭하였다. 노국은 왜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황제는 노국 사자에게 도장을 하사하였다.

<보기>

- ㉠ 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경계하지 말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함께 하며 재난을 함께 구제하고 흉포한 환난을 함께 대비하고 구제한다.
- ㉡ 과선장군과 하려장군의 군대 및 치의후가 징발한 야랑국의 군사가 미처 당도하기도 전에 남비엿은 평정되었다. 마침내 이곳에 9군을 설치하였다.
- ㉢ 한은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흥노에 일정량의 비단, 술, 쌀 등과 같은 식품을 보내 주어 형제의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 ㉣ 천하를 통일한 후 몽염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강족(羌族)들이 번성한 곳을 빼앗게 하였다. 서쪽 여러 용을 쫓아내고 북쪽의 적(狄)을 물리치고 만리장성을 쌓아 경계를 삼으니, 여러 강족이 다시는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였다.

- ① ㉠
- ④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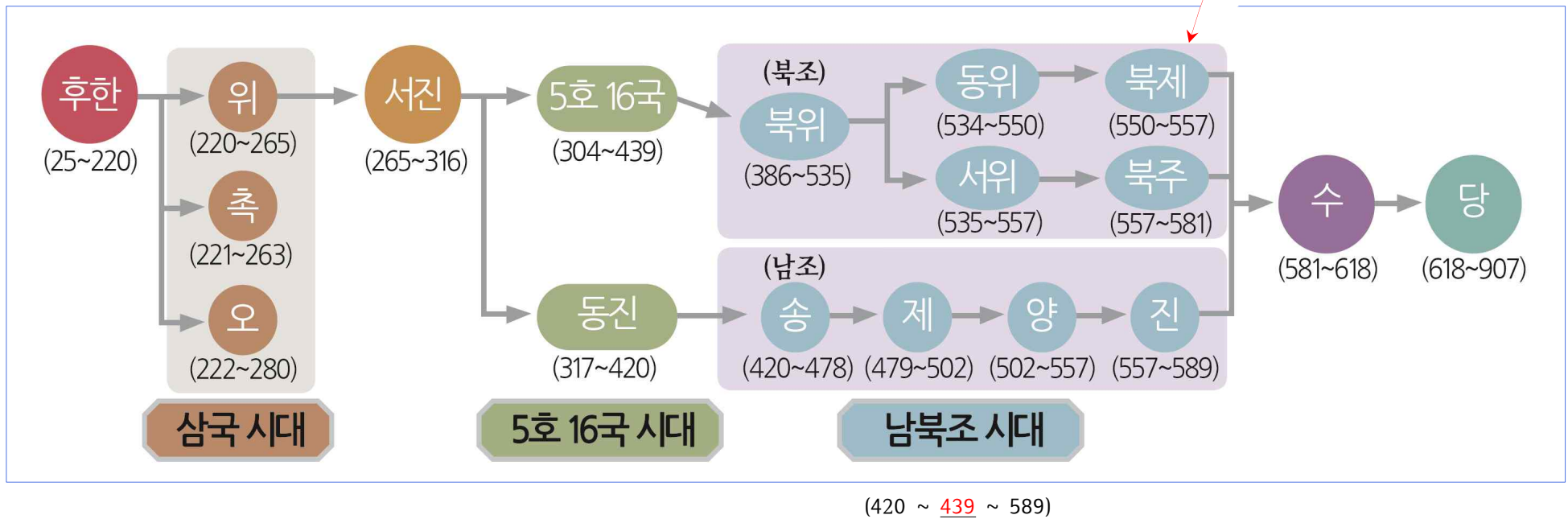
- ② ㉡
- ⑤ ㉡, ㉢, ㉣

- ③ ㉡, ㉣



- ① BC, 207
BC, 194
- ② 진국의 한왕
- ③ 이타스케 유적
- ④ BC, 37
- ⑤ BC, 18
- ⑥ 304
- ⑦ 317
- ⑧ 삼국 항쟁기 도왜인 전방후원분 씨성 제도

◎ 인구 이동의 요인 : 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② 인구 증가, ③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④ 국가 사이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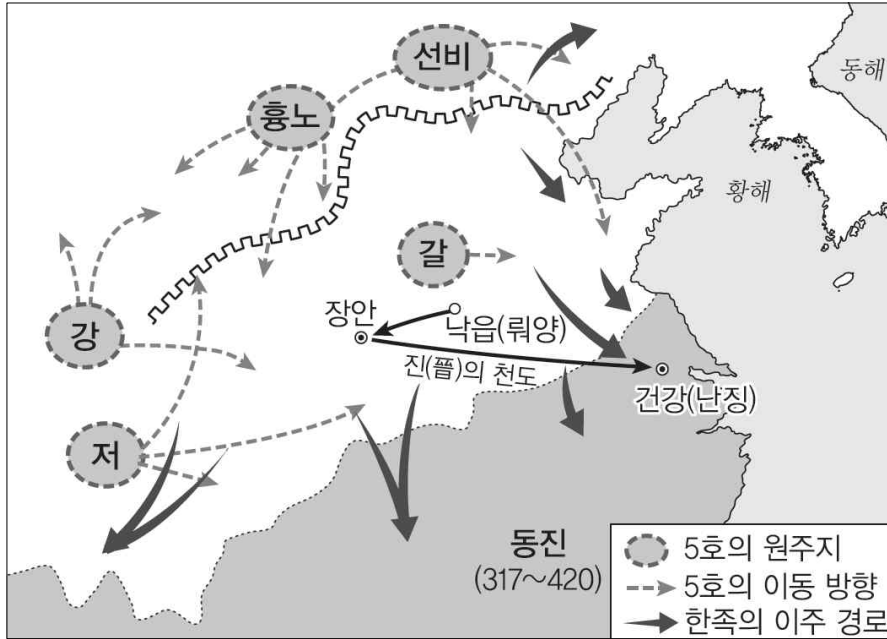


◎ 인구 이동

선비, 흉노 등의 북방 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 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한쪽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다. 한쪽은 이들을 5호(흉노, 선비, 갈, 저, 강족)라고 불렀다. 그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연(337 ~ 370)과 후연(384 ~ 407)은 요서와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랴오둥(요동) 지역을 두고 패권을 겨루기도 하였다.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439년 선비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세운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다.

한쪽 정권은 5호에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창장 강 이남의 강남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317년 건강(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우고, 화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였다. 이후 강남 지방에는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들어서서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하였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4세기



5 ~ 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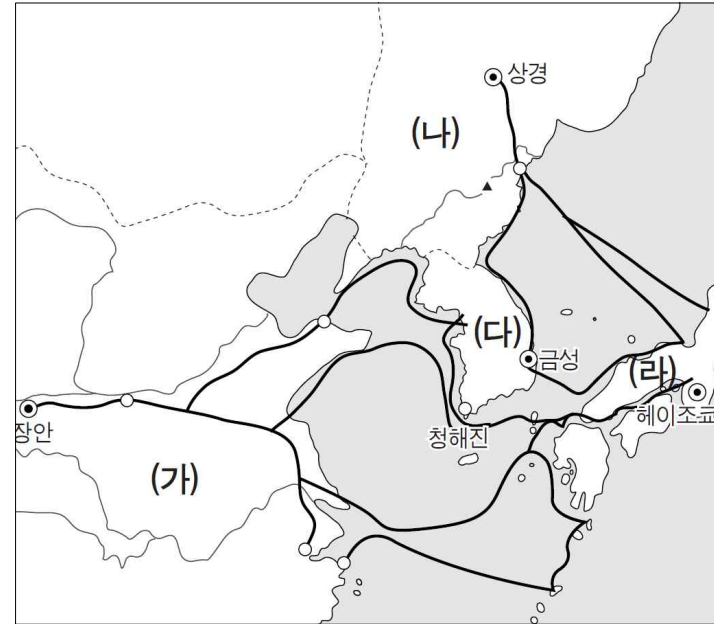
- 中
 - : 화북에서 5호 16국 시대 개막(304 ~ 439), 북위 건국(386)
 - : 한족의 강남 이주(동진, 317 ~ 420)
- 韓
 - :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 ~ 375)의 전성기
 - : 전진 → 고구려, 불교 수용(372)
 - : 동진 → 백제, 불교 수용(384)
- 日
 - : 야마토 정권의 성장,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의 조성
 - : 칠지도 전래(369)

- 中
 - : 남북조 시대(439 ~ 589)
 - : 북위 효문제(재위 471 ~ 499)의 호한융합 정책 실시
 - ↳ 균전제(485), 삼장제(인장·리장·당장), 한화 정책(호어·호복 금지)
 - : 돌궐의 유연 격파(552)
- 韓
 - : 장수왕(재위 413 ~ 491)의 남북조 등거리 외교
 - : 백제 무령왕릉 축조(525)
- 日
 - : 스에키 토기(5C, 백제·가야), 불교 전래(from 백제, 552)와 아스카 문화

7세기 전반



8세기 이후



中
: 수(581 ~ 618) 멸망 → 당(618 ~)의 재통일

韓
: 돌궐 + 고구려 + 백제 + 왜 對 당 + 신라(648)

日
: 견수사, 견당사(630) 파견, 다이카 개신(645)

돌궐
: 동돌궐(583 ~ 630), 서돌궐(583 ~ 657), 킬 테긴 비(732)

토번
: 라싸, 송첸캄포, 문성공주[640년, 당(唐) 태종(재위 626 ~ 649)]
: 투옥훈 정복(663)



中
: 당(唐, 618 ~ 907),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 안남도호부(679 ~ 862), 아베노 나카마로 입당(717)

韓
: 통일 신라(676 ~ 935)
: 발해(698 ~ 926)

日
: 당(唐)의 문물 수입
↳ 견당사(630 ~ 894)
: 다이호 율령(701)
: 헤이조쿄 천도(710 ~ 794)

외번공주(和蕃公主)

- ▷ 흉 노 : 왕소군(BC. 1C)
- ▷ 돌 궐 : 안의공주(수, 597)
: 의성공주(수, 599)
: 형양공주(당 태종, 7C)
- ▷ 토 번 : 문성공주(당 태종, 640)
- ▷ 위구르 : 함안공주(당 덕종, 8 ~ 9C)

연표 정리

인구 이동과 지역 국가의 성장

280년	304년	317년	346년	351년	384년	386년	413년	420년	439년	
진(晉), 중국 통일	5호 16국 시대	동진 건국	근초고왕 즉위(~ 375)	전진 건국(~ 394)	후연 건국	북위 건국(~ 534)	장수왕 즉위(~ 491)	송(宋) 건국	남북조 시대	
460년	471년	479년	485년	493년	502년	525년	540년	545년	550년	
원강 석굴 사원	효문제 즉위(~ 499)	제(齊) 건국	균전제 실시	북위 ↳ 뤼양 천도	양(梁) 건국	무령왕릉 축조	진흥왕 즉위(~ 576)	돌궐 ~ 서위의 동맹	북제 성립(~ 577)	
552년	557년	562년	574년	581년	583년	589년	604년	607년		
돌궐 ↳ 유연 격파	진(陳) 건국 북주 성립(~ 581)	신라 ↳ 대가야 병합	쇼토쿠 태자 출생(~ 622)	수(隋) 건국	동돌궐(~ 630) 서돌궐(~ 657)	수(隋), 진(陳) 정복 ↳ 남북조 통일	쇼토쿠 태자의 섭정(~ 622)	호류 사 창건 ↳ 아스카 문화		
612년	618년	626년	629년	630년	640년	645년	648년	660년	663년	668년
살수 대첩	당(唐) 건국	당 태종 즉위 ↳ 재위(~ 649)	현장, 인도 여행	견당사 최초 파견	문성공주 ↳ 토번, 송첸캄포	안시성 전투 다이카 개신	나·당 연합	백제 멸망	토번의 토욕혼 정복 백강(구) 전투	고구려 멸망
671년	676년	679년	698년	710년	717년	719년	732년	737년		
쓰쿠시 도독부 설치 ↳ 다자이후	신라, 당 축출 ↳ 삼국 통일	안남도호부 설치 (~ 862)	대조영, 진(震) 건국 ↳ 발해(713)	헤이조쿄 천도 ↳ 나라(~ 794)	아베노 나카마로 ↳ 입당(入唐)	발해 무왕 즉위 ↳ 재위(~ 737)	궐 테긴 비	발해 문왕 즉위(재위, ~ 793) ↳ 당 → 발해 국왕(762)		

① 5호의 이동과 동진의 건국(『수능 특강』, p.33)

진(晉) 회제는 영가 5년(311)에 흉노가 세운 전조의 유충에게 사로잡혔다. 이듬해 가필 등이 이미 진왕(秦王) 사마염을 받들어 황태자로 삼고 장안에 도읍을 두었지만, 아직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다가 영가 7년(313)에 이르러 회제가 봉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황제를 칭하였으니, 이가 민제이다. 민제는 건흥 4년(316)에 유요에게 항복하였다. 이듬해 원제가 건강(난징)에서 진왕(晉王)을 칭하였지만 역사 제위에 나아가지 않다가, 만제가 봉어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황제를 칭하였다.

② 효문제의 한화 정책(『천재·금성·미래엔·비상 교과서·수능 특강』, p.49·50·42·44·35)

- 효문제가 말하기를, …… 이제 북방의 언어(선비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토록 한다. 서른 살 이상인 사람은 습관이 굳어져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서른 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 올바른 언어에 익숙해지면 풍속이 새롭게 교화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 수도에 머물던 관료들에게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호복(호족 복장) 금지 조치를 어기고 있는가?” 라고 꾸짖었다.

- 위수, 『위서』 고조 효문제 본기

③ 도왜인의 이주(『비상 교과서·수능 특강』, p.25·35)

- 덴무 10년(682), 삼한(三韓)의 사람들에게 조를 내려 “…… 귀화한 첫해에 함께 온 자손도 아울러 역의 부과를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 덴무 14년(686), 당인(唐人), 백제인, 고구려인 147인에게 작위를 주었다. …… 귀화해 온 고구려인들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 『일본서기』 권 28

④ 백강 전투(『미래엔 교과서』, p.45)

백제(부흥군)는 적이 계획한 바를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장수 여원군신이 용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여러 장군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에 진을 쳤다.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싸웠지만 불리하여 후퇴하였다. 당군은 좌우에서 수군을 총동시켜 협공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이 패하였다.

- 『일본서기』 권 27

Check!

기원 전후 ~ 8세기경의 집단적 인구 이동

부여족

- 송화 강 → 동가 강 → 한강
- 토착 세력과 연합
- : _____, 백제 건국

선비·흉노 등 호족(胡族)

- 만주·몽골 → _____ 지방으로 이동
- 호족과 한족의 융합
- 5호 16국과 북조 국가 건설

한족(漢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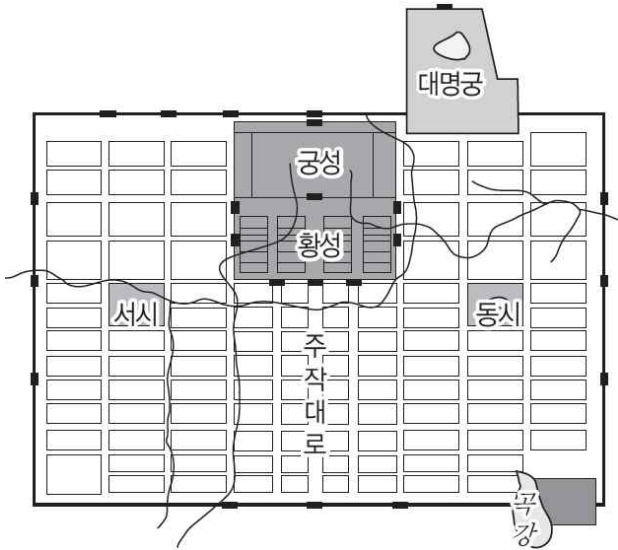
- 화북 → _____
- 토목 기술 전파

트라이진(渡來人)

- 한반도, 강남 → 일본 열도
- _____ 정권 성립에 이바지
- _____ 문화 발달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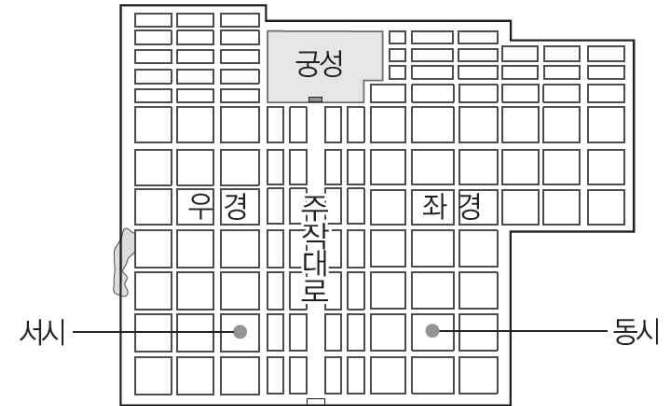
당 대의 문화 교류



<당의 장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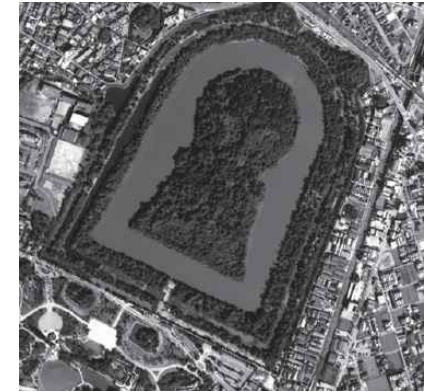
<발해의 상경성>



<니리의 헤이조쿄>

개념 Check

- ① 부여족의 주몽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방으로 남하하여 ()를 세웠다.
- ②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정권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생기자, 온조는 () 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
- ③ 흉노 등 북방 민족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자, 진(晉)의 한족이 양쯔 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317년에 ()을 건국하였다.
- ④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왜로 이주한 이주민을 ()이라 부른다.
- ⑤ 4 ~ 7세기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은 () 정권이 성립되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⑥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인 ()을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다.
- ⑦ 439년 화북을 통일한 ()는 효문제 때 한화(호한융합) 정책을 통해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 ⑧ ()는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치고 가야 지역까지 공격하였다.
- ⑨ ()의 송첸캄포왕은 비단길과 쓰촨 지방을 공략하여 당(唐)을 압박하였다.
- ⑩ 왜에서는 645년에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한 ()이 단행되었다.
- ⑪ 663년 왜는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 입구에서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 ⑫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698년에 ()를 건국하였다.



<다이센 고분>

▶(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성립과 발전>

선비족의 건국 → 화북 지역 통일 → 평성에서 뤼양으로 천도 → (기)

- ① 중원의 국가가 바지를 입고 의자를 사용하는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 ② 흉노에 화번공주를 보내는 등 유화 정책을 표방하였다.
- ③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였다.
- ④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한족의 성씨 사용과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호한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의 양제는 남녀 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운하를 만들었다. 뤼양 서쪽 황제의 정원에서부터 곡수낙수를 끌어들이어 황허 강에 이르르게 하고, 황허 강의 강물을 끌어들이어 화이하 강과 바다로 통하게 만들었다. - 『통전』
- 살수에 이르러 □(기)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고구려 군사가 후방에서 적군의 후속 부대를 공격하였다. 여기에서 적장 우둔위장군 신세웅이 전사하였다. 이에 여러 부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 『삼국사기』

- 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남비엣과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 ③ 백제, 왜와 연결하여 당을 견제하였다.
- ④ 사상 통제를 위해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 ⑤ 진(陳)을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가), (나) 시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백제는 고구려가 원조할 것을 믿고 자주 신라를 침략하였는데, 신라왕 김춘추는 표문을 올려서 구원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소정방을 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수군과 육군 10만으로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 또한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총관으로 삼아서 신라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와 세력을 합치게 하였다. - 『자치통감』
- (나) 29일에 이근행이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도망하게 하고는 전마 3만 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그 정도 되었다. …… 사찬 시득이 신라의 수군을 거느리고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 『삼국사기』

- 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 ② 일본에서 헤이조쿄(平城京)가 건설되었다.
- ③ 베트남 지역에서 반랑국이 발전하였다.
- ④ 고구려가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쳤다.
- ⑤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였다.

▶주(周) 대 조공·책봉 관계의 등장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관계를 기초로 정치적 연맹 관계를 맺은 주(周)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왕과 제후들 사이에 맺어진 종법적 상하 관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인(漢) 대 외교 관계의 변화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성 백등산 전투(기원전 200년)에서 흉노에 패배 → 흉노와 화친 조약 체결(기원전 198년)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화이론) 확립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p>유교에는 원래 ‘하늘이 덕 있는 자를 군주(天子)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 라는 통치 이념(천명사상)이 있었다. 그런데 한 대에는 중국이 문명의 중심인 ‘중화(中華)’ 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랑캐(夷)’ 로 보는 화이관(중화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이 두 관념이 합쳐지면서 한의 황제는 천명을 받은 천하의 주인이며, 천하는 모두 그의 교화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한이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주(周)가 국내의 제후들에게 하던 조공·책봉의 형식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한이 주변국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책봉한 것은 직접 통치할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인 대 조공·책봉 외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 →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	-----------------------------------------------------------------------------------------------------------------------------------------------------------------------------------------------------------------------

▶ 위·진 남북조 ~ 수, 당 시기의 국제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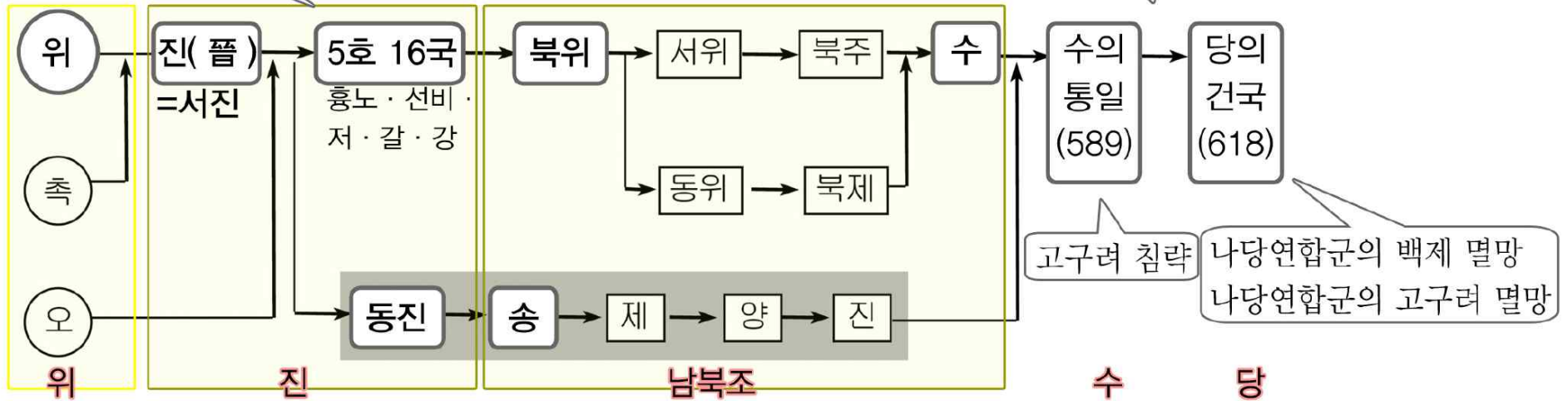
국제 질서의 다원화



국제 질서의 다원화



중국 중심 질서의 회복



① 한(漢)과 흉노(『천재·금성 교과서, 수능 특강』, p.58·70·39)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묵특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제(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왕비)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② 후한(後漢)과 왜(倭)



57년에 왜의 노국(奴國)이 공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 사신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 하였다. 노국은 왜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는 인수(印綬)를 주었다.

- 범엽, 『후한서』동이 열전

③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국 중심 세계관(『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56·51·54)

- (동명왕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 태왕(광개토 대왕)의 은혜는 크고 넓은 하늘에 미치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쳐도다. …… 백잔(백제)과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 왔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라고 하였다. 수 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의 글 가운데 무례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수서』 왜국전
- 백제의 동성왕 20년(498) 8월,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
- 김부식, 『삼국사기』 백제 본기

④ 고구려와 돌궐(『천재 교과서』, p.58)

영양왕 18년(607) 초, 수의 양제가 카간(계민)의 장막에 행차하였을 때 고구려 사신이 카간의 처소에 있었는데, 카간이 사신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알현하였다. ……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 돌아가면 너의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여라. …… 그렇지 않으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으로 순행할 것이다.”
- 김부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5 (가) [____], (나) [____]



그림은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가)의 송첸감포가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步辇图)』이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잘 나타나 있다.

6 돌궐의 외교(『미래엔 · 비상 교과서』, p.49 · 54)

- 북주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 『주서』
- (돌궐의) 사근(카간)이 딸을 북주의 무제에게 보낼 것을 승낙하자 북제도 (돌궐에) 청혼하였다. 북주의 청혼이 수용되어 그 딸이 무제의 황후가 되었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 양국을 조종하여 양쪽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냈다. 사근을 이은 타발 카간은 “나에게는 남방에 두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물자가 없어질 걱정이 결코 없다.”라고 호언하였다. - 『주서』

7 화번공주(『미래엔 교과서, 수능 특강』, p.52 · 40)

- (수 문제) 개황 17년(597) 돌궐의 돌리 가한이 사신을 보내 공주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사신을 태상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육례를 가르친 다음, 종실의 딸인 안의 공주를 돌리 가한에게 시집보냈다. - 『수서』
- (토번의) 농찬은 돌궐, 토욕혼이 모두 (당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폐물을 갖추어 구혼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 (농찬이) 군대 20만을 동원하여 송주를 침범하고,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친 다음 다시 공주를 맞이하고 싶다고 이르게 하였다. …… (태종은) 종실의 딸인 문성 공주를 보내기로 하였다. - 『신당서』
- 북방의 만이는 예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해 왔다. 지금 철륵(돌궐계 부족)의 설연타는 완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하여 혼인의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 북방 민족의 습속은 여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든 여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게 외손자가 된다. 외손자라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주변이 30년간 무사할 것이다. - 『정관정요』

Check!

당(唐, 618 ~ 907)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돌궐 : 몽골고원에서 흥기 → 북주와 북제가 돌궐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하려고 경쟁 → 수에서 의성공주 파견 → 수의 이간책으로 약화 (돌궐-고구려 연계 움직임) → 당 초기에 당이 돌궐에 대해 신하로 자처 → 당의 이간책과 공격으로 돌궐 제압(돌궐-발해 연계 움직임) → 위구르에 멸망

무왕 때 당의 산둥반도 공격(돌궐 - 발해 - 일본)
문왕 때 3성 6부 수용, 상경성(장안성 모방)으로 천도

쇼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7세기초)와 견수사 파견과 관련 있다.

전당사 파견 → 다이카 개신(646년) → 백제 부흥 운동에 지원군을 파견(백강 전투) → 견당사 파견 → 다이호 율령(701년) → 나라에 당의 장안을 본뜬 헤이조쿄(평성경)을 건설, 나라 시대 개막(710~794년), 당풍 유행 → 헤이안쿄(교토) 건설, 헤이안 시대 개막(794~1185) → 당말에 견당사 폐지와 국풍 문화 발달)

신라 사신과 상인들이 규슈의 다자이후를 오가며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래

의상 : 당에 유학하여 신라로 귀국(화엄종 개창)
원효 : 당에 유학, 불교교리 집대성, 판비량론(중국, 일본에 영향), 아미타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현장 : 인도 순례, <대당서역기>, 가져온 경전을 대안탑에 보관 → 명대 소설 <서유기> 관련
의정과 다이탕당 : 인도 순례
감진 :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가르침
혜초 : 신라인으로 당에 유학, 인도 순례, <왕오천축국전>
엔닌 : 일본(헤이안시대)에서 당에 유학(장보고의 도움), <입당 구법순례행기>
아베노 나카마로 : 안남도호부(북베트남 통치기관)의 도후를 역임
크영 쯡 푸와 크영 쯡 폭 형제 : 당의 고관을 지낸 안남인
최치원 : 빈공과에 급제하여 당의 관리가 됨(토황소격문)

북부 베트남은 한무제 이래 중국의 지배를 천 년간 받음 → 당은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여 지배 → 당 멸망 후 5대 10국의 분열기에 응오 왕조가 첫 독립 → 베트남 최초의 장기왕조인 리왕조는 당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임

송첸캄포 왕 때 번영, 당이 토번에 문성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냄(티베트에 불교 전파)

장안(시안), 낙읍(뤄양), 양저우, 항저우, 광저우

신라방(산둥, 양쯔강 하류)

신라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

일본

발해

동돌궐

서돌궐

위구르

당(618~907)

토번

라사이

남조

안남

지랍

바르나나 왕조

동중국해

남중국해

카스피해

■ 당의 초기 영역
--- 수가 만든 대운하
■ 당의 최대 영역

종쪽, 쯡니 자매의 봉기는 1세기 후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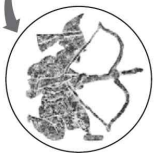
※ 교정(646 → 645)

- 쇼토쿠 태자(574 ~ 622)
- 현장법사(602 ~ 664)
- 견당사(630 ~ 894)
- 송첸캄포(? ~ 649)
 - ↳ 당, 문성공주, 640
- 백강 전투(663)
- 다자이후(규슈, 671 ~)
- 발해 고왕(❶, 재위 698 ~ 719)
 - ↳ 산둥 반도 공격(732)
- 발해 무왕(❷, 재위 719 ~ 737)
 - ↳ 상경성 천도(755)
- 발해 문왕(❸, 재위 737 ~ 793)
- 안남도호부(679 ~ 862)
- 아베노 나카마로(698 ~ 770)
- 최치원(857 ~ ?)

개념 Check

- ① 한 무제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의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② 남북조는 서로 사절을 교환하였고, 상대국 사절을 () 사절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 ③ ()는 6세기에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④ 중원 왕조가 정략상 인접 국가의 왕에게 시집보낸 황제나 황족의 딸을 ()라고 한다.
- ⑤ 일본은 당에 대규모 사절단인 ()를 보내 문물을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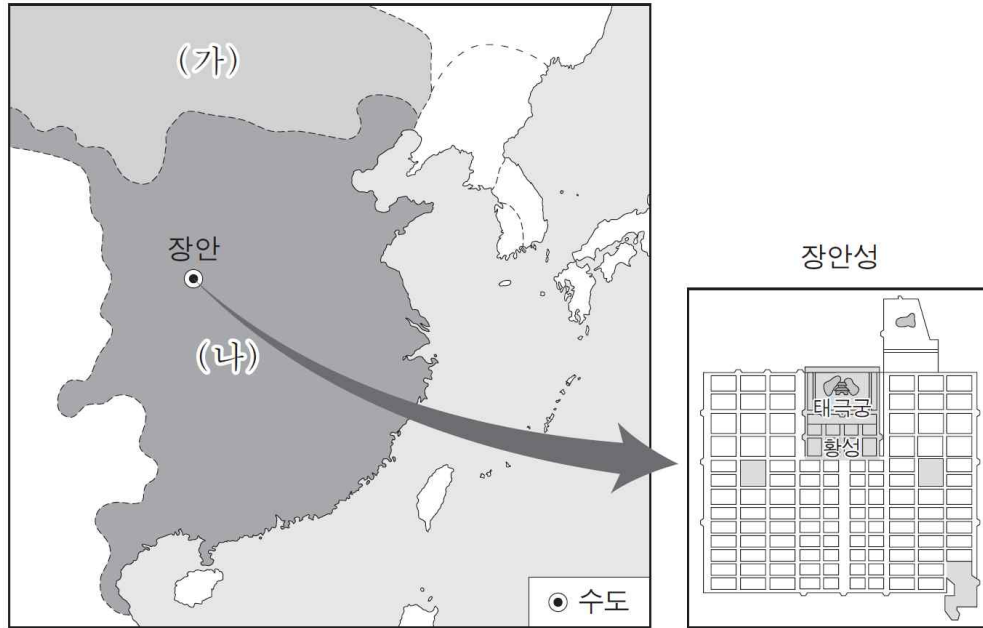
▶(기)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장면은 유목 국가와 농경 국가가 전투하는 모습을 등에 새긴 것이다. 이 가운데 뾰족한 모자를 쓰고 활을 쏘는 사람은 **(기)**의 병사라고 한다. **(기)**은(는) 목축 선우 때 동호와 월지를 제압하였고, 선우 아래에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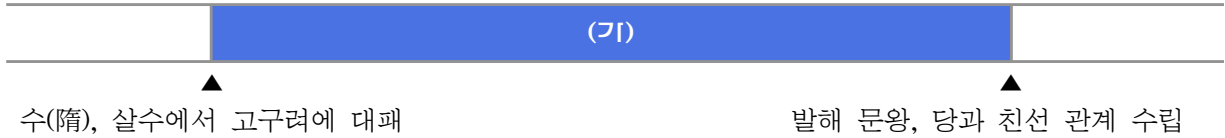
- ①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② 북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 ③ 위구르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 ④ 한 무제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 ⑤ 어우락 왕국을 정복하였다.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백제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
- ② (가) - 남북조를 통일하고 대외 확장을 도모하였다.
- ③ (나) - 신라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
- ④ (나) - 어울락(어우락) 왕국을 멸망시켰다.
- ⑤ (나) -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일본은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 ㉡ 신라는 당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 ㉢ 북제는 돌궐에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다.
 - ㉣ 전 왕조는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다음 지료를 모두 활용에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수능 특강』, p.48)

-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자,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 광개토대왕릉비문
- 백제의 동성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 『삼국사기』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였다. - 『수서』

- ① 유목민과 농경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 ② 도래인(渡來人)이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③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가 형성되었다.
- ④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 ⑤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이 새로운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